



유재연  
일상속

## 3.1절에 외치는 나의 만세

저에게 3월 1일은 부끄럽게도 그냥 개학을 앞둔 빨간 날, 새 학기 시작의 두려움으로 잠 못드는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일은 10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며 조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냥 평범했을 수도 있는 1919년 3월 1일.. 그 날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어 놓은 날이 되었는데요, 3.1 운동의 위대함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 소중한 가치를 붙든 사람들..

3.1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한 개인의 큰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주와 연해주를 돌며 독립운동의 밑거름을 만든 여운형. 그는 1918년 11월, 세계 평화와 피압박민족 해방을 주장한 크레인(윌슨 대통령 특사)의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아 '조국 독립'라는 단어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또한 학생 독립운동의 지도부였던 김원벽은 연희전문학교 3학년 시절, 미국인 선교사에게 '자신의 삶은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립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유와 평등의 소중한 가치만을 붙들겠다는 그들의 결심이 있었기에 새로운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3.1운동은 한 명의 용기로 이뤄진 운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3.1 운동 지도부가 꾸러지기 위해 여러 지식인과 인사들이 연합하였으며 교의를 뛰어 넘어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합했습니다. 또한 명월관에서 민

족 지도부의 선언문 낭독이 이뤄지는 때, 파고다 공원에서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 만세'를 외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국 독립'이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고, 염원이 담긴 목소리는 끝끝내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 스스로 작은 힘을 보태는 사람들..

3.1운동 이후 남대문역에서 펼쳐진 3.5 만세 운동은 1만 이상의 군중이 참여하였고 시위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내일 오전 8시 나팔이 한 번 울리면 우리 2천만 동포는 태극기를 들고 남대문 부근에 집합하라' 이 문구는 학생 세명(채순병, 김종현, 최강윤)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3월 5일 시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모이는 장소, 시간이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르자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전단지 400여 장을 만들어 뿌렸습니다. 학생 지도부도 아니었던 그들은 그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2019년 3월 1일은 어떠세요? 저는 3.1 운동을 가능케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읽으며 배화교회 성도 여러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매 주일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교회의 성장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 그리고 성실을 들어 쓰셔서 3.1운동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 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저의 일상이 소중해집니다. 2019년 3월 1일, 서울 한 복판에서 뛰는 가슴으로 외쳐 봅시다~  
하나님 만세!! 배화교회 만세!! ^^

# 배화교회

주보 제 2019-9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19.3.3

## 3.1운동100주년기념예배

"모든 이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와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회 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다함께: 여호와와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태산을 넘어

## 공동기도 다같이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 봉헌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 로마서 3장 21-24절, 5장 17-19절, 빌립보서 2장 5-8절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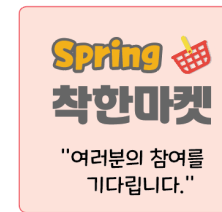
## 설교 김영석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 3.1운동100주년 기독교 공동선언 다같이

## 찬양과 기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 축도\* 김영석 목사

##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 3.1절기념예배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 사순절 준비

3월 6일(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안내문은 연합속회모임에서 배부하겠습니다.

### 손으로묵상

<사순절 편>이 지난 주에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달, 완필자는 오늘 저녁까지 알려주세요.

### 캠퍼스지역

배화여대 교목실과 협력하여 "사랑하는 배화에게"라는 주제로 캠퍼스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메시지가 하나님이 생각나는 편지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착한마켓

봄맞이 착한마켓이 3월 31일(주일)에 열립니다. (문의: 김선민 집사)  
- "봄"에 어울리는 옷, 악세서리, 가방, 리빙소품, 구두, 책, 그외 기타 물건을 모 집합니다. 물건은 3월 24일까지 가져오시면 됩니다.  
- 봄맞이 착한마켓을 진행해주실 '일일셀러(판매자)'를 모집합니다. 선교비 모금의 뿌듯함과 완판의 기쁨을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 기획위원회

다음 주일 점심식사 후,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 배식 및 정리

오늘은 굳지마오숙, 다음 주는 쭉쭉속입니다. 식사배식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해주세요. 배식 봉사자들은 축도 후에 올라시면 됩니다.